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수영장·체력 단련실 이용객 증가에 전문강사·안전요원 집중 배치

건강증진·지역활력 불어넣는 '행복 거점'으로 부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해 7월 개장한 도양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과 체력 단련실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도양 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수영장, 체력 단련실, 청소년문화의 집, 세미나실 등을 갖춘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남부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마련된 이 시설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도양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과 체력 단련실은 개장 이후 누적 이용객이 2만여 명에 달하며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설 이용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설비를 갖춘 쾌적한 환경과 수려한 주변 경관이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에 전문 강사와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체계적인 운동 지도와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도양 복합문화센터는 군민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철저한 안전 관리로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도양 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김태영 축구장,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올해 준공 예정인 도양 스포츠파크 등 스포츠 기반시설과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영암왕인문화축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업체 모집

27일까지 신청… 농·축·수산물, 화훼류, 가공식품 등 지역업체 참여

영암군이 4/4~12일 '2026 영암왕인문화축제'에서 운영할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참가업체를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축제 방문객에게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이 부스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직거래장터로 기능할 예정.

판매 직거래장터에는 영암군 농·축·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 생산·가공 농·어업단체, 식품 제조·가공업체, 소상공인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판매 품목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화훼류, 가공식품 등이며, 참가업체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단말기를 구비해야 한다.

영암군은 온라인 영암몰 입점업체, 월출페이 가맹업체, 2025년 직거래 참여업체,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업체 등을 우선 선발한다.

아울러 39세 이하 청년 농부, 여성 농업인, 귀농인 업체와 신규 참여 업체 등에도 우선권을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3월 중 참가업체를 최종 확정하고, 판매 품목과 가격 결정, 사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진행해 축제 준비에 나선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영암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에 영암 농가와 업체가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 함께 방문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가꾸자"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나주시,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단독, 중개사 신고 시 계약서, 계약금 증빙서류 첨부 의무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 사항이 확대되고 제출 서류가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매수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신고 사항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거래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입증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직거래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의무는 없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 중 외국환 관련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신고 사항과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거래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339-8790)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산책·휴식·문화 품은 순천 신대천,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

생태·경관 개선 통해 복합문화 수변공원으로 자리매김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대천이 정비사업과 보강공사를 통해 산책과 휴식,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다.

순천시는 총 100억 원을 투입해 1.2㎞ 구간의 하천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을 완료했다. 하천 폭을 기존 20~25m에서 35~40m로 확장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을 낮췄으며, 유수지에는 보를 설치해 하천수를 담수·재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시는 단순한 하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 치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보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이용자 동선을 분석해 시설물과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주민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해 복합문화 수변공간으로 기능을 강하하고 있다.

또한 하천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수목을 추가 식재하고, 산책로를 따라 가로수와 야생화, 화초류를 심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그늘이 있는 휴식 공간으로, 봄·가을에는 꽃길 산책 명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신대천6교 인근과 기적의 놀이터 주변 친수공간은 물놀이와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신대야외도서관 in 신대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완도군, 장보고 상단과 수산물 해외시장 공략 가속화

1,838만 달러 규모 수산물 수출 협약·552만 달러 실계약 이뤄

완도군은 지난해 28개 업체로 구성된 장보고 상단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총 1,838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과 552만 달러의 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해 3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4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장보고 한상 세계 대회'와 연계한 수출 상담회를 통해 1,380만 달러의 수출 협약, 480만 달러의 실 계약을 성사시켰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월드옥타 한국비지니스엑스포 인천 등 4개 국제 전시회에 참가해 바이어와 478건의 상담 진행, 458만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과 72만 달러의 실 계약을 체결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미국,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총 7회 판촉 행사를 개최해 49만 달러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는 전복이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군은 올해도 완도 수산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5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때 세계 각국의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열고, 해외 주요 식품 박람회에서 장보고 상단과 완도군 공동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완도 수산물 세계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면서 "앞으로도 완도 수산물의 글로벌 인지도 제도와 수출길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장성군 북이면, 민·관 합동 일제 대청소 실시

사회단체 관계자, 면민, 공직자 등 70여 명 참여 '구슬땀'

장성군 북이면이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민·관 합동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과 주민, 공직자 등 70여 명이 동참했다.

면민과 공직자들은 면 소재지, 주요 도로, 사거리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길가의 쓰레기를 주웠다. 청소를 마친 뒤에는 '환경 보호 실천 캠페인'도 벌였다.

감사 인사를 전한 신미영 북이면장은 "이번 명절이 면민과 향우, 방문객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